



뉴질랜드 이야기



나는 엄마와 이모, 사촌오빠 동생과 함께 이곳 뉴질랜드에 왔다.

뉴질랜드의 집의 넓은 풀밭정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너무 행복했다.

우리동네는 엄청나게 큰 잔디공원과 오리가 있는 호수,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차도 별로 없고 예쁜 꽃들과 집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동네이다.

이 곳은 푸른 하늘의 구름이 무척 아름답다. 가끔 저녁하늘은 신기한 분홍색깔의 구름이,

어떤 때에는 태양을 보는 듯한 이글이글 끓는 것 같은 구름이 나타나기도 한다.

밤에는 별이 많은데 특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집 밤하늘엔 은하수길이 있다는 것이다.

은하수를 가만히 보면 열십자성자리도 바로 찾아낼 수 있다.

나는 학교 가는 것이 무척 기대되었다.

학교운동장은 푸른 잔디와 큰 나무 등 한국과는 많이 달라보였다.

학교 가기 전날 밤, 친구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무척 궁금해했었다.

학교에 등교하여 International 담당이시고, Esol 담당이신 Mrs O'connell 의 소개를 받으며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나의 담임선생님이신 Mrs Adams 아주 친절하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신다.

그리고 나는 Violin 으로 Orchestra 활동을 하고 있으며 Mrs White 음악선생님의 Choir 지휘하에 Vocal group 활동도 하게 되었다.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 엄마와 이모는 골프를 가시거나 영어를 배우신다.

나는 Halswell Netball 팀에서 수비를 맡고 있는데 지난번 경기에서 Best 상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Girl's Guide 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Cooking 과 Games 는 무척 재미있다.

지난 Holiday 에는 Queenstown 에 다녀왔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곳에는 산과 호수 그리고 바다가 많다. 그리고 바다의 색깔은 계속 변한다. 그 중에서도 난 특히 에메랄드 색깔의 바다를 좋아한다

이곳은 여행 할 때마다 양이 아주 많다. 산 옆을 지나 가 다 보면 양들이 산 절벽에 덕지덕지 붙어 풀을 뜯어먹고 있다.

어떻게 산꼭대기에 올라갔는지?...

그리고 계속 생각해봐도 내가 여기 온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다.



